

##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1.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은 전 연령층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정서적으로 변화와 갈등이 심한 청소년기가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취약성이 큰 시기이며 약물남용이 청소년 비행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물남용자 연령의 하향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간의 약물남용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이 각종 청소년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하겠다(김소야자, 1991).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중3병이나 고3병과 같은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해소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심리적 중압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추구로 약물에 의존해 보려는 경향이 증가하며 일단 약물남용을 시작하게 되면 급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점점 강한 약물에 손을 대게 되고 약물남용 상태에서 난폭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발달 시기에 있어서 건강에 크나큰 해악을 가져와 후에 성인병 발병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물남용시 무단결석, 성적저하, 공격적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비행과 범죄의 계기가 되며 약물중독 상태에서는 환각, 망상등이 나타나 예측 불허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약물에 탐닉할 경우 사회

적으로는 필요한 생산적 노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이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약물남용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며 적절히 예방하고 약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경험률

1989년 체육청소년부가 발족되고 처음으로 청소년에 대한 약물남용 예방대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1989년부터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고 1989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서 김성이교수 주재로 연구가 시작되어 1991년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김소야자교수 주재로, 1993년에는 한국청소년 학회에서 문화체육부의 의뢰를 받아 차경수, 김경빈, 김성이, 김소야자, 박명윤, 주왕기, 최충욱교수의 주재로 실태조사를 위주로 약물남용 현황을 알아보고 1989년, 1991년, 1993년 연속으로 같은 약물 종류별 추이를 분석 보고할까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11,100명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전국에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초·중·고·대학생 외에도 근로청소년, 무직 청소년, 소년원생 등을 모집단위 인구비례로 표집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 경험율이 비교적 높았던 첫번째 약물 집단은 법적제제가 없거나 미약한 약물군으로 콜라 95.5%, 커피 88.5%, 드링크제 77.2%, 진통제 70.6%, 술 59.7%, 담배 26.9% 등의 순서였다.

사용 경험율이 두번째로 높았던 약물군은 법적 규제가 약간 있는 약물들로서 각성제 8.0%, 수면제 5.8%, 진해제 4.6%, 신경안정제 5.1%, 항히스타민제 3.3% 등의 순서였다.

사용 경험율이 세번째로 높았던 약물군은 법적규제가 심한 약물들로서 가스 4.0%, 본드 3.9%, 대마초 1.1%, 코카인 1.2%, 환각제 0.8%, 히로뽕 0.7%의 순서였다.

약물의 사용량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남자들에 비해 각성제, 수면제, 진통제 등 법으로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약물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층에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서 약물을 사용하는 숫자가 많았으며, 초  
 등학생의 96.3%가 콜라를, 74.3%가 커피를  
 마셨으며, 중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비율  
 로 콜라나 커피를 마셔 우리나라 학생의  
 상당수가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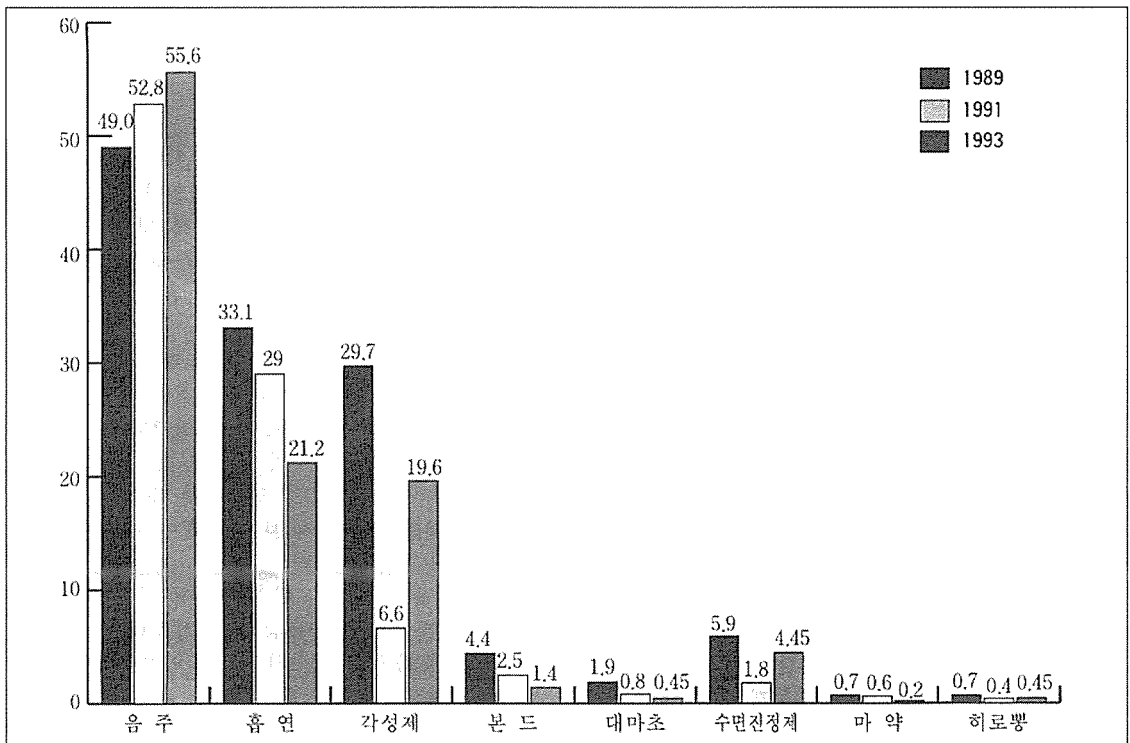
집단별로 보면 근로 청소년이 학생보다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년  
 원생들의 경우에는 타집단과 전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물을 많이 사용했었다. 또  
 한 약물사용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약물사

용 또래 친구를 가지고 있어 약물남용분  
 야에서 또래 친구의 강력한 영향력을 짐  
 작할 수 있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거주지  
 에 따른 사용 약물의 차이는 없었으며, 다  
 만 도시 청소년 일수록 담배와 커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약물에 관한 한 그  
 사용빈도는 전국적으로 비슷해 약물문제  
 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해주었다.

약물 최초 사용 시기에 대한 문항에서,

(그림1) 학교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자 분포



구하기 쉬운 커피, 콜라, 드링크제, 진통제 등은 응답자들의 10~20%가 10세 전후해서 경험하였다.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10세 전후에 약물을 시작한 비율이 2배 더 높았다.

지난 수년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술, 수면제, 진정제 등 합법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약물의 사용빈도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담배와 심각한 마약류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4,260명의 청소년중 66.9%의 청소년들이 술, 담배, 본드나 가스, 대마초, 히로뽕 등의 습관성 약물중 1~2가지 이상의 약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물 경험도가 낮았고 연령별 비교에서는 16~20세 사이에 약물 경험 비율이 높았다.

소속별 비교에서 학생, 근로/무직 청소년, 소년원생의 순서로 약물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 비교에서 초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중퇴자에서 약물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생활수준, 이사횟수, 가정의 형태, 부모의 관심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약물사용 태도 등의 요인과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 비율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음주 흡연의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음주, 흡연, 본드 사용등의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 흡연, 본드, 대마초, 히로뽕 등의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방과후 다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나 경찰에 의해 처벌받은 친구의 수가 더 많았다.

약물의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낮았으나, 자기 보호 능력이나 자존감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약물사용 경험 비율이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심각해진다. 특히 금품갈취, 신체폭력, 언어폭력, 가출, 기물파손, 반항, 친구들의 약물문제 순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해졌다.

청소년 약물사용의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일탈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특히 소년원생일수록 일탈친구와의 접촉이 잦았다.

그 다음의 원인으로는 청소년의 나이가

##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많아질수록, 개인적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약물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약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약물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2.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추이 분석

약물사용 추이 분석에서는 89년과 91년에 추이분석에 사용했던 약물을 중심으로 학교 청소년의 약물사용 평생 경험율을 평균한 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학교 청소년의 경우 음주는 49.0%(1989), 52.8%(1991), 55.6%(1993)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흡연은 33.1%, 29%, 21.2%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드나 마약등은 법적제제조치로 인해 50%, 또는 30%로 감소한 반면 히로뽕은 1991년과 비슷한 사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성제와 수면 진정제의 경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성제의 경우 89년에도 29.7%에서 91년에 6.6%로 감소했으나 93년의 경우 19.6%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 진정제의 경우도 89년 5.9%, 91년에 1.8%이다가 93년에는 4.45%를 타내면서 사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의

경우, 89년 75.5%, 91년 82.4%, 93년 77.6%로 음주율이 감소됨을 보이고 있다. 흡연의 경우는 89년 28.2%, 91년 36.4%, 93년 39.1%로 증가추세에 있어 학교 청소년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드와 대마초 사용율이 감소한 반면 각성제와 수면 진정제 사용율이 증가한 것은 학생 청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년원생의 경우는 음주의 경우 91.4%로, 흡연의 경우 93.7%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여 학교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과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감된 소년원생의 경우는 다른 대상자와 달리 마약과 히로뽕을 제외한 모든 약물의 사용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에 있어 대상자별 교육 내용이나 전략에 있어 강점을 두어서 교육해야할 내용이나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선호하는 약물에 대한 구입처, 경로, 또래관리, 법적제제 등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II. 양호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

일반 교사들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의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서 본 저자가 1993년 문화체육부의 용역으로 연구한 결과를 게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양호교사가 실시한 보건교육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시켜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98.6%, 없는 경우는 1.4%로, 거의 대부분의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야자 등(1992)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97.1%, 없는 경우가 2.9%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호교사가 실시한 보건교육을 주제중에 가장 많이 실시한 주제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성교육 29.1%, 약물교육 26.4%, 구강교육 11.6%였고 그 다음으로 응급처치, 보건지식, 건강관리,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야자 외(1992)연구결과에서도 성교육 27.1%, 약물교육 26.6%, 응급처치, 보건지식 각각 12.6%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보건교육 자료로는 비디오가 48.3%로 제일 많았고 책자

30.2%, 기타 16.5%, 슬라이드 5.0%였다.

김소야자 등(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보건교육시 비디오를 이용하는 경우가 28.8%, 책자 9.7%, 슬라이드 12.7%, 강의가 48.8%로 본 연구에서 시청각 자료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각 학교에 비디오 보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에 비디오를 통한 보건교육 교재 개발이 요청된다고 사려된다. 보건교육 실시후 교육평가 실시여부는 실시한 경우 39.5%, 실시하지 않은 경우 60.5%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김소야자 등(1992)의 연구결과에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25.7%, 안한 경우 74.3%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평가를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이 아닌 경기지역을 포함하여서 지역간 차이가 없는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후 학생의 반응으로는 좋았다 74.1%, 그저그랬다 25.6%, 반응이 없었다 0.3%로 학생의 반응이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교사의 만족도는 만족했다 62.0%, 그저그랬다 36.4%,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1.6%로 나타났다.

## 2. 약물사용 학생 지도경험

약물문제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양호교사가 58.7%, 경험이 없는 경우가 41.3%로 경험이 있는 양호교사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 지도방법은 개인상담이 63.6%, 학생과로 의뢰, 기타가 각각 10.1%, 가족상담 8.1%, 치료기관에 의뢰 7.1%, 가정방문 1.0%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약물남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경우가 39.9%, 없는 경우가 60.1%로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처리자는 양호교사 30.9%, 기타 29.1%, 교도주임 20.8%, 담임교사 18.2%였다. 또한 양호교사의 개입정도는 자문의뢰 65.5%, 직접상담 14.5%로 나타나서 직접담당보다는 자문의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도에 있었던 약물남용 문제건수는 1~2회 69.4%, 3~4회 19.5%, 5회 이상이 11.1%였다. 1991년의 약물남용 문제건수가 1~2회 50%, 3~4회 40%, 5회 이상 1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3~4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학생의 흡연, 음주, 약물에 대한 양호교사의 처리내용

담배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했을 때, 이유를 묻고 상담한다 91.4%, 따끔하게 야단친다 7.8%, 적발하여 학칙대로 처리한다 0.8%였다. 학생의 책가방이나 소지품에서 술을 발견했을 때, 이유를 묻고 상담한다 89.1%, 따끔하게 야단친다 9.4%, 적발하여 학칙대로 처리한다 1.6%였다.

학생의 책가방이나 소지품에서 본드나 부탄가스를 발견했을 때, 이유를 묻고 상담한다 89.0%, 따끔하게 야단친다 7.9%, 적발하여 학칙대로 처리한다 3.1%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생의 흡연, 음주, 약물에 대한 양호교사의 처리내용은 김소야자 등(199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했을 때, 학생의 책가방이나 소지품에서 본드나 부탄가스를 발견했을 때 각각 이유를 묻고 상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4.0%, 85.7%, 86.2%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위주가 아닌 상담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려된다.

## 4. 양호교사가 실시하는 약물교육

양호교사의 약물교육 실시의 필요성 여부는 필요하다고 99.3%로 나타나 대부분의 양호교사가 약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약물교육 실시 주도자로는 양호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가 88.3%, 전문인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가 6.6%, 그밖에도 담임교사, 초빙강사, 기타의 경우가 각각 1.5%로 대부분의 양호교사가 약물교육실시를 주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야자 등(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가 53.8%, 양호교사가 담당교사나 전문인 및 상담교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가 26.2%, 전문인이나 초빙강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 16.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호교사가 보건 교육 실시의 책임자로 보고되었다.

약물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4.9%,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5.1%로 나타나 대부분의 양호교사가 약물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5. 양호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양호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99.3%,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0.7%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양호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성교육 4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약물교육 16.5%, 정신건강 15.1%, 건강관리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야자 등(1991)의 연구 결과에서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약물교육 26.1%, 성교육 24.6%, 건강관리 21.7%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실시한 영향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 Ⅲ.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며 한시적이며 일회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다른 보건교육과 연관성 없이 단독으로, 그리고 몇시간의 프로그램만으로 행해지는 것은 큰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아래에 제시된 보건교과 과정들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학생들의 건전한 건강습관 속에 올바른 약물사용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약물문제가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기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방교육이 절대 필요하고 교육에의 접근도 가장 수월한 것이 학교차원에서의 예방교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화된 학교 예방교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건교육은 일생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지만 학교는 사회의 어느 다른 공공기관 보다도 사람들의 사회화 과정을 유효하게 담당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자기 형성기에 있는 세대들에게 태도와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중요하다(Rubbison & Alies, 1984).

또한 건강과 관련된 습관은 어렸을 때

형성되므로 보건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 서부터 실시되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1992년 김소야자는 중·고등학교 양호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실시한 결과 약물에 관한 지식이 교육 전보다 높아졌으며, 수용적인 태도가 낮아진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정규적으로 보건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당 6시간의 교실수업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양호교사가 부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외부인 전문인에게 의뢰되어 행해지고 있는 실정 이므로 보건교육의 지속성이나 체계성은 미비한 상태이다.

더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주왕기, 1993).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에 약물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는 연간 53시간, 중학교는 연간 49시간, 고등학교는 29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필수교육시간 규정과 함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따라 약물교육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가. 초등학교 약물교육 내용

약물교육은 단순히 약물에 관한 지식을 알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으므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태도를 배워 약물남용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교육내용으로는 1-2학년에서 먼저 식품과 비식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서서히 몸에 해로운 물질들에 대해 알도록 하고 식품과 비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3-4학년에서는 약물과 의약품, 처방약과 비처방약,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 약물오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 1-2학년에서 보다는 약물에 관한 지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5-6학년에서는 약물남용, 약물의존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약물남용이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약물남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교육한다.

또한 약물 각각에 대하여 신체에 미치는 해악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을 다루어야 하며, 약물의 종류는 술, 담배, 카페인, 진통제, 진정제, 흡입제, 대마초의 범위에서만 다루고, 그밖의 약물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중학교 약물교육 내용

약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약물에 관한 지식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아 개념의 개발과 지구력, 정신력, 저항력의 강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긍정적인 약물남용 억제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약물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성숙 수준에 맞게 적절한 약물교육을 시행하여 약물남용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약물남용 행위를 억제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약품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약물남용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약물을 남용할 경우 우리 인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알게하고, 만일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해로울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며 술, 담배, 커피의 사용도 지나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들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다. 고등학교 약물교육 내용**

고등학생의 경우 실제로 약물을 경험해본 학생이 적지않은 시기이므로 약물을 하고 있거나 약물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이미 약물남용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시 약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흔히 남용되기 쉬운 약물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장기적인 약물남용의 결과를 알게하며 습관적인 약물복용이나 약물남용을 끊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이들이 또 다른 약물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들을 위한 약물교육**

약물교육은 단 몇시간의 남용약물들의 유해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양호교사나 교도교사, 학생주임 등이 약물남용 청소년의 상담이나 예방에 주력을 할 것이지만 모든 교사들에게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전 교사들을 위한 청소년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 약물남용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남용약물의 유해성과 폐해, 약물을 규제하는 법과 규칙, 지도방안과 상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약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교육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은 유해성 위주의 정보전달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건강하게 성장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간관계, 자기주장, 사회기술훈련, 도덕관과 정체감 확립 등과 맞물려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자신을 찾아감으로서 약물남용의 권유를 받았을 때 스스로 거절할 수 있고 약물남용 경험

자의 또래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 3. 약물남용 예방교육 방법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호교사들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자료가 비디오 48.3%, 책자 30.2%, 슬라이드 5.0%로 최근에 이용되는 영상매체를 통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때로는 비디오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비디오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디오 상영만 한다면 학생들 나름대로 각자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교사가 비디오 상영을 통한 목표달성을 점검해 봐야 할 수 있다. 어떠한 영상매체를 활용하던 간에 관람 혹은 교육 후에 꼭 토의 시간을 마련하여 목표를 점검하고 이해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교육후에 본인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환기시킬 수 있는 개인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고 교사는 상담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른 학생과는 다른 경험을 한 학생으로 탐색해 나가는 태도로 상담했으면 한다. 특히 약물 소지자나 사용자로 낙인찍는 언사는 피했으면

한다. 약물남용 학생을 발견하거나 남용하는 학생이 발견되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로 하여금 상담기법 등의 이론과 실습 등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IV.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도방안

1.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교사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이 나타내는 약물남용이 아닌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행동 유형이나 진단명보다는 어떠한 발달과제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청소년의 행동 특성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약물남용이 청소년 초기의 신체적인 변화에 적응 혹은 성충동의 조절 문제인지, 또래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해방을 이루려는 반항과 싸움인지 혹은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실험과 노력인지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 3.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과 태도형성

청소년은 본질상 어른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상담초기에 부모와 다른 태도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부모와 선생으로서의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충분히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어른 친구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거나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감정 표현에 대한 해석등이 도움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왕성한 지적 욕구와 지능화를 이용하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자와 가까이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4. 청소년 정책 수행자의 전문적 자격 조건을 위한 연수의 활성화

### 5. 집단토론과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억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불만을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자신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 개발하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청소년들의 진취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또한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며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훈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6. 가정이나 학교주변, 학교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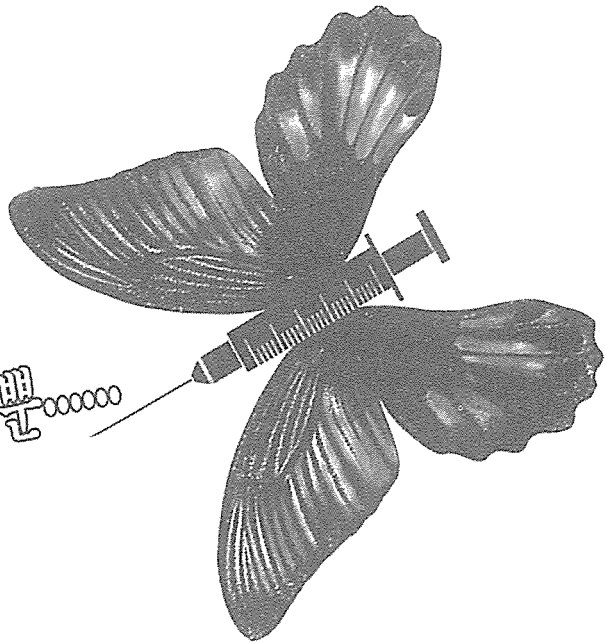
청소년은 믿을 수 있고(비밀이 보장되고), 편리하고(언제나 문제 있을 때 찾아갈 수 있고), 나이에 맞고(나이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마련, 중·고·대학생 분리), 종합적인(한번 방문해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좋아하므로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고복자(1991).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 심포지엄 보고서, 7~80
2. 김경빈(1991).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보건사회부 약정국 마약관리과, 65

3. 김경빈(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 약물상담실.
4. 김성이(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5. 김소야자(198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수문사.
6. 김소야자, 고복자, 김경빈(199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양호교사의 약물교육 효과연구. 문화체육부.
7. 김소야자, 고복자, 김경빈(199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침서(초등학생용).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학회.
8. 김소야자, 고복자, 김경빈, 나동석(1992). 양호교사를 위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체육청소년부.
9. 김소야자, 고복자, 김경빈, 나동석(1992).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양호교사의 약물교육효과 연구. 체육청소년부.
10. 김소야자, 고복자, 김경빈, 나동석(199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침서(중·고등학생용).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학회.
11. 김소야자, 박명운, 오가실, 김경환, 서일(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체육

마약은 환각의 날개일뿐.....



교사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부

12.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3(3)

13.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4). 양호교사가 실시한 초·중·고등 학생들의 약물교육효과 연구. 연세 교육과 학지.

14. 차경수, 김소야자의 10인(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문화체육 부.

15. 윤명숙(1993).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

족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 약물 상담실  
16. 정희숙(199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본지 통권 제 20 호 게재분)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김 소 야 자